

경북도·재미한국학교협 '한인 3·4 세대 독도교육'



경북도·재미한국학교협 '한인 3·4세대 독도교육' (대구=연합뉴스) 경북도가 미국 뉴저지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'독도 올바르게 알기 및 영토주권 강화'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. 2015.7.19 << 경북도 >> haru@yna.co.kr

(대구=연합뉴스) 이승형 기자 = 경북도는 미국 뉴저지에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'독도 올바르게 알기 및 영토주권 강화'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.

협약식에는 신순식 경북도 독도정책관,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을 비롯해 1천여명의 미주지역 교장·교사들이 참석했다.

이들은 교과서 왜곡 등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한인 3·4 세대에게 독도를 알리는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.

전체기사 본문배너

도는 대회기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와 함께 대한민국·독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독도 만화, 리플릿 등 독도 홍보물을 배부했다.

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81년에 설립된 미국연방정부 비영리단체로 회원학교 1천곳, 교사 5천명, 학생 4만명이다.

한국어와 한국 역사·문화 교육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haru@yna.co.kr [출처:2015_07_19 연합뉴스]